

전남광주특별시, 폭염 지속에 온열질환 고위험군 주의 당부

60대 이상 46.7%·실외 발생 83.7%...작업장·논밭 집중

취약어르신 안부 확인·한낮 농작업 자제 등 예방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함께 지킵니다!

온열질환 예방, 우리의 더위 안전수칙!

폭염은 피할 수 없어도,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

60대 이상 고령층
전체 환자의 46.7%

농업인
논밭에서 집중 발생!

야외 근로자
실외 작업장에서 많이 발생!

10명 중 8명 이상 (83.7%)이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세요!

사원하게 지내기
그늘에서 휴식하고 시원한 옷을 입어 체온을 낮추세요!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낮 12시~오후 5시 야외활동과 농작업을 피하세요!

보호구 착용하기
모자, 선글라스 등 햇빛을 가리는 보호구를 착용하세요!

무더위 쉼터 활용하기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여 더위를 피하세요!

온열질환 주요 증상

- 어지러움, 두통
- 메스꺼움, 구토
- 근육경련
- 발이 많이 나거나 또는 발이 나지 않음
- 의식저하, 혼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이런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시원한 곳으로 이동 →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체온 낮추기 → 수분 섭취 (의식이 있을 때) → 증상이 심하면 119 신고

의식이 없거나 상태가 심각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세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더위를 이겨냅니다!

주변의 독거노인·고령 농업인 안부를 확인해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한 여름, 안전한 일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온열질환 예방, 우리의 더위 안전수칙 포스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고령층과 야외활동 종사자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전남광주 누적 온열질환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191명, 광주 36명이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

※2025. 8. 5. 기준: 전남광주 276명(사망 1명)/전국 3천293명(사망 21명)

세부적으로는 60대 이상 고령층과 남성, 실외 작업장·논밭 등 야외활동 환경에서 발생이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9명(21.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6명(20.3%), 40대 31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을 합하면 106명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175명(77.1%)

으로 여성 52명(22.9%)보다 약 3.4배 많았고,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45명(63.9%)으로 가장 많으며, 열사병 33명(14.5%), 열경련 29명(12.8%), 열실신 13명(5.7%) 순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전체 227명 가운데 190명(83.7%)이 실외에서 발생했다. 세부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47명, 주거지 주변 30명, 강가·해변 18명, 운동장·공원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에선 실내 작업장 12명, 집 10명, 건물 6명, 기타 5명, 비닐하우스 4명 등이 확인됐다. 특히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한 환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시군구 보건소와 응급 의료기관의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취약 어르신은 생활지원사가 안부

를 확인하고 독거노인·장애인 가구는 활동량 감지기를 활용해 응급상황을 살피고 지원하고 있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이·통장과 복지공동체 등 안부 확인자가 폭염 중 대경보 시 2일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폭염특보 시 야외활동을 전면 중단해 냉방이 가능한 실내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선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홍보와 마을방송을 강화하고, 산업체·건설현장에는 물·그늘·휴식 제공과 작업시간 조정 등 기본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지역이나 중증환자 발생 시에는 시군구와 즉시 정보를 공유해 현장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 '디 올 뉴 아반떼'

계약 첫날 1만 대 돌파

현대자동차 '디 올 뉴 아반떼'가 계약 개시 첫날 1만 대 이상의 계약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대표 준중형 세단 디 올 뉴 아반떼가 계약 개시 첫날 총

1만 1,094대의 계약을 기록했다고 6일(목) 밝혔다. 이는 2020년 4월 출시된 7세대 아반떼의 계약 첫날 실적인 1만 58대를 넘어선 역대 아반떼 최고 기록으로, 차급을 뛰어넘는 상품

성으로 돌아온 8세대 아반떼의 우수한 경쟁력을 증명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SUV 선호 트렌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통 3박스 형태의 내연기관 세단이 계약 개시 단 하루 만에 1만 대 이상의 계약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디 올 뉴 아반떼의 초기 흥행은 전 세계 미디어와 소비자의 이목

을 집중시킨 과격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간성, 안전성, 주행 성능, 편의 및 디지털 사양 등 전반적인 상품성을 차급 이상으로 끌어올린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상품성은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개인 고객을 중심으로 최상위 트림 선호가 한층 높아지고 하이브리드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림별 선택 비중은 최상위 트림

인 인스퍼레이션이 52%로 과반을 차지하고 기본 트림인 모던과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은 각각 24%를 기록했으며, 인스퍼레이션의 높은 선택 비중은 준중형 차급에서도 첨단 사양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호하는 고객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프리미엄 트림부터 기본 적용)'와 '전자식 변

속 레버 P단 긴급제동'을 비롯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 다양한 최신 사양이 기본 적용돼 만족도 높은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한다.

/이가영 기자

사령

영암주제기자

김기철기자

생명의 땅 강진 하늘과 바다와 강, 들이 만나는 강진
강진에서 나오는 귀한 농수산물을 드셔 보세요.

강진군과 초록민음이 추천하는 강진 건강10대 농식품



강진군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01 신선

정정지역 강진에서 직접 생산

02 신속

농업인 직접 택배발송

03 신뢰

강진군

믿고 먹을 수 있는 맛!
착한 가격!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 지원센터
http://www.gangjin.center